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대통령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범인조차도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제가 인간이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사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기도 하다. 자신의 존재 이유, 이 시간이 공간에 있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탐욕과 집착을 버리라며 ‘무소유’를 설파하였지만 그 역시 가장 큰 것을 남기셨다. 바로 ‘무소유의 정신’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살아남는 정신적 가치를 남기는 것만큼 뜻깊은 것이 어디 있었는가.

대통령이란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결코 벗어나할 수 없는 존재다. 사실 그 질문의 부름이 강하기에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책임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무엇을 남길 지에 대한 개념’이 투철할수록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도 할 것이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 의문을 풀려는 의지가 확고할수록 대통령직의 무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을 보면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건지 의문이 가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이 버리라고 했던 ‘탐욕’과 ‘집착’이 각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을 압축하는 단어가 되어 버렸을 뿐이다.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느 평론가가 절묘하게 간파했듯이, ‘국가를 개인과 측근들의 수익 모델’ 정도로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경제성장’의 허상과 부자 되고 싶은 국민의 욕구가 맞아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직을 맡았으면 국가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했을 법도 하련만, 탐욕의 깊은 상처만 남겼을 뿐이다.

현 정권하에서 덮고 가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이라는 재앙 사업에 올인하고 ‘자원 외교’ 거품을 일으키며 국부를 허비한 것은 도대체 대통령직에 걸맞은 일이 아니다. 게다가 국가 리더의 탐욕은 그 하나

에 그치지 않는다. 탐욕은 전염병처럼 번진다. 최근 드러나는 검찰과 법조계의 썩은 고리, 권력과 재계 사이의 이너 서클이 벌이는 비도덕적인 행태는 이명박 정권에서 도져서 전반적으로 또 더욱 극심하게 퍼져 버리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의 탐욕이 우리 사회를 전염병처럼 물들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은 아예 공직 사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가 리더의 아집이 작동하니 공직사회는 상식이 작동하지 않고 그 누구도 쓴 소리를 하지 않은 채 납작 엎드릴 뿐이다. 국민은 이미 대통령의 바닥을 보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니 불안해진 대통령은 더욱 우병우 민정수석 등 권력 실세 지키기에 나서고,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에 대한 진수성찬 대접이며 특권의식과 비도덕성을 드러낸 장관들 임명조차 강행한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착은 ‘아버지의 명예 회복’과 ‘아버지 시대로의 회귀’ 그리고 ‘권력의 유지’ 이 세 가지임을 이미 전 국민이 알아 버렸다. 이런 사적 집착으로

는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이 엄혹한 시대의 국정을 꾸려 가기 어렵다. 국가 안보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게 일상이 되었으니, 과연 북한의 존재나 북한 핵없이 이 정권이 기릴 수 있는 게 그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탐욕과 집착, 어느 쪽이 더 끔찍한 유산일까? 이미 이 질문은 무의미한 것일까?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이 대통령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는 더 이상 본질적 의문이 아니게 되어 버린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니 참으로 끔찍할 따름이다.

4대강 사업, 녹색 성장, 자원 외교 사업 같은 게 아니라, 사드 배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새마을사업 세계화,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사건이 아니라, 대우해양조선과 한진해운의 비리 문제가 아니라, 부디 ‘남북 평화와 동북아 시대의 균형 외교, 국민 복지와 양극화 해소,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 헬조선을 벗어나는 사회정의’에 대한 의제를 들고 싶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남기고 싶은 대통령’을 바라야 하는가? 부디 희망을 다오!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의료칼럼



전 효철
광주 우리들병원 대표원장

아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 가을은 예전보다 기온이 높아 늦게 잠드는 사람들이 늘고, 더불어 아식을 찾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밤 늦게 먹는 습관이 반복되면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른바 ‘야간식이장애증후군’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야간식이장애증후군은 잠자리에 들기 전은 물론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 먹는 등 야간에 음식 먹는 횟수가 잦아지는 일종의 음식중독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아식으로 먹는 음식들이 대개 짜고 기름진, 필요 이상으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고, 맥주 등의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습습관이 계속 이어지면 비만,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기 고



김 동 민
동신대 에너지융합대학 전기공학전공 교수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산업 변화는 어느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18세기 산업혁명을 견인한 영국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20세기 IT혁명을 촉발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에니악 컴퓨터, 미 국방성의 인터넷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통섭(sensilience)형 인재’가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융합 교육도 더 이상 생경한 단어가 아니다.

특히 ‘미래 에너지산업’은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 전기, 기계, 신소재, IT 등 특정 영역의 전문가뿐 아니라 각 학문 분야를 통합적, 수평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융합형 실무인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유엔 미래보고서 2025’에서는, ‘현존

아식의 유혹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면 중독적 성향을 의심해볼 수 있다. 달거나 짜고 기름진 음식은 쾌감중추를 자극하는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음식중독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이런 습관성 아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식이 잦으면 식사 및 수면과 관련된 생체시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식으로 즐겨먹는 메뉴 대부분은 대체로 고열량, 고지방인 경우가 많고, 나트륨 함량도 높은 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DB에 의하면 부대찌개의 경우 1회 제공량(600g)당 열량은 520kcal, 나트륨 함량은 2664mg, 탄수화물은 47g, 콜레스테롤 함량은 83mg이다. 또 감자탕은 1회 제공량(900g)당 960kcal, 나트륨은 2,631mg, 탄수화물은 27g, 콜레스테롤은 454mg이나 된다.

식사 외 추가로 먹는 이런 아식들은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에너지원의 과잉과 나트륨 과다섭취로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 가령 탄수화물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과잉 섭취하면 비만 위험이 높아지고

혈액 내 중성지방과 혈당이 증가하여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위험이 커진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특히 탄수화물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비만 위험이 높아진다.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 과다 섭취 시 뇌·심혈관계질환,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 때문에 아식을 습관적으로 먹는 야간식이장애증후군의 증상이 있다면 비만이나 당뇨병,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이미 음식중독에 가까운 상태라면 식습관을 단번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실제로 베이컨·소시지·치즈케이크 등 지방과 칼로리가 높은 인스턴트 식품이 마약처럼 뇌의 핵심 보상중추를 지나치게 자극, 쾌감을 유발함으로써 먹지 않고는 못 견디는 강박성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해외 연구결과도 있다.

아식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끼니를 거르면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 허기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규칙한 식사 후 폭식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들지 않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

야간식이장애증후군처럼 습관적으로 밤에 즐겨먹던 사람이 아식을 갑자기 끊으면, 음식 섭취에 대한 강한 욕구와 허전함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급단 증상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칼로리와 지방, 나트륨이 높은 음식을 대체할 다른 음식을 섭취하면서 단계적으로 줄여준다. 예를 들어 단 것에 강한 집착을 한다면 바나나나 건포도 등과 같이 당분이 높은 과일 섭취를 조금씩 줄이고 대신 오이, 당근, 셀러리 등의 채소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튀김 등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한다면 닭 튀김 대신 닭가슴살 샐러드나 두부, 잡채 등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추천된다.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것은 과도한 염분 섭취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세로토닌의 활동을 만족시켜 주면서 점차 먹는 양을 줄여나가고, 나중에는 아식을 중단하고 아침에 기분좋게 일어나 만족스러운 아침 식사를 즐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인의 지지만으로 힘든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신산업 융합형 인재 키우자

하는 직업의 80%는 10년 내에 사라지거나 진화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장과화영하 속에서는 나왔던 직업들이 이제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경험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IT기술들과 다양한 고객중심의 서비스 산업을 통해 빠르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산업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교육시스템 재정비와 사회적 자원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에너지산업분야를 교육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전기, 기계, 재료, IT 등 각각의 분야가 독자적인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해왔다. 전력, 기계설비, 신소재, 소프트웨어 등의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에너지 신산업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新 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들테마 스마트 그리드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는 도시지역과 대학캠퍼스 등지에 신재생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최적운영을 실증하고 있으며, 빅 데이터 및 사물인터넷(IoT)기술은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관

매하는(에너지프로슈머) 시장을 위한 필수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융·복합 학문 경향과 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므로 교육기관에서는 전통적인 에너지산업의 기반이 되는 주전공의 심화교육과 병행하여 ‘창의융합적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전공 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관련 학계 및 실제 산업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이다. 교육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융합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은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에너지밸리’의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밸리 조성계획은 2020년까지 에너지기업 500개 유치, 일자리 2만5000개 창출을 목표로 ‘지역상생’과 더불어 ‘글로벌’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이전하는 에너지기업들은 학문분야를 구분하여 채용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신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바로 활용 가능한 기술단위의 융합 전공을 산업체와 협의하여 개설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산업체 인증을 부여하여 채용에 연계하는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융합전공의 도입과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주요 원인의 하나는 융합전공자들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이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 해도 이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일자리가 없다면 무의미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일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만을 추구했던 과거와 달리 우리사회는 융합적 인재의 육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동시에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질 미래에는 융합의 트렌드가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격화되고 있는 ‘융합과 통섭의 시대’에 대비해 교육기반을 혁신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신설되는 동신대학교의 에너지융합대학이 에너지밸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 대한 인력수요를 제공하고,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산업체 집적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적인 에너지 신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社 說

더민주 예산소위에 지역 의원 배제한다니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광주·전남에서 총선 참패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지원을 공언했다. 전·현직 당 대표는 물론이고 소속 의원 대다수가 수시로 지역을 찾아 호남 대변자를 자처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더민주의 태도를 보면 이런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어서 할지 고개를 가웃하게 한다. 단적인 예가 광주·전남 지역구에서 유일한 이계호 의원을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치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옛 계수조정소위원)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증감을 최종 조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 국회 확보에 꼭 필요한 자리다.

더민주는 예산소위에 호남 몫으로 한 자리를 배정기로 했는데 두 명의 전·현직 지역구 의원 중에서 선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엔 호남에 두 명의 조정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전·현·후에 광주와 전남은 매년 번갈아

가면서 선임했었다.

하지만 현 흐름대로라면 더민주가 전북에 한 명만 배지할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 지역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정당별 할당 인원에 한계가 있었지만 호남의 중추인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의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굵직한 현안에 필요한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돼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따라서 이를 국회에서 반드시 되살려야 하는 절박한 실정에서 끝내 이 지역을 외면한다면 지금까지 약속은 헛말이었음을 자인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더민주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가타부타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저기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더민주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역을 배려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전북 집단폐사 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적조로 인한 완도 전북 양식장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 집단폐사로 수백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보는 최근 완도군 금일읍 도장리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 확인 결과 양식장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전북 빈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완도군은 금일면(348어가)·생일면(34어가) 등 모두 406 어가에서 4400만 마리·35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설상가상으로 경남 거제 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수산물 기피 현상까지 겹쳐 전북 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또한 피해 어민 가운데 상당수가 전남도의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에 따라 ‘귀아’한 청년이어서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보 기자의 현지 르포에 의하면 지난 5일 오후 완도군 금일읍 도장리 일정한 부근 한병철(43) 씨 전북 양식장

의 경우 1~3년생 전복 2000~25000마리 가운데 살아 꿈틀거리는 전복은 고작 5~6마리에 불과했으며 상품 가치가 있는 전복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한 씨가 지난 3년간 전복 양식에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특히 가슴 아픈 일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 5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피해도 피해지만 어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번 집단폐사의 원인이 적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마치 고수온이 원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수온으로 인한 재해는 재해보험(대풍·강풍·풍랑·적조)에서 제외돼 보험에 가입한 381 어가는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완도 전북 양식장 집단폐사의 주원인을 하루속히 밝혀내는 한편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피해 어민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세상은 넓고 이색 기록은 많다. 지난 5일 두바이 한 호텔 바에서 이색 도전이 열렸다. 위스키 수천 잔을 에너지음료 잔 위에 올려놓고 차례로 떨어뜨리는 ‘폭탄주 도미노’였다. 도전자는 12시간에 걸쳐 위스키 6148잔을 음료 잔 위에 올렸는데, 제대로 떨어진 위스키 잔은 4578잔이었다. 도전 성공. 이전 기록은 바하마 한 술집에서 성공했던 4107잔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828m) 등 두바이에는 ‘세계 최대’ 나 ‘세계 최초’가 많다. ‘세계에서 가장 긴 웨딩 베일’, ‘가장 비싼 코냑 한 잔’ 기록도 두바이가 갖고 있다. 이번 도미노는 두바이의 130번째 기네스북 기록이다.

매일 전 미국에서는 ‘가장 긴 혀 길이’를 놓고 기네스 도전이 펼쳐진 끝에 혀 길이 11cm가 넘는 소녀가 기네스북에 오르게 됐다. 4일 레바논에서는 ‘가장 많은 생선 진열하기’ 도전이 열렸다. 6일에는 세계 최고령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중국인 할머니가 11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 할머니는 1800년대를 살아 본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책이 1955년 조판본 ‘기네스북 오브 레코드’(The Guinness Book of Record), 바로 ‘기네스북’이다.

다. 현재 100개국에서 30여 종의 언어로 번역·발행되며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다.

최근 광주 남구가 오카리나 합주 세계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해 화제다. 11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1만 명이 발이는 공연이다. 현재 기록은 2013년 영국 런던 로알 알버트를 공연으로 3081명이 오카리나를 연주했다. 1만 명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고, 기록도 달성한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도전은 즐겁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